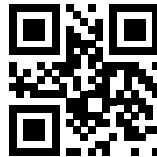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00호 2019년 4월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 발행인: 윤상래 편집인: 김원영

미주 동창회보 300호 발행, 동문께 깊이 감사

첫째는 원고가 부족합니다.

우리 회보는 일반 신문과는 달리 독자가 투고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또 정성스럽게 원고를 보내주시는 동문들은 소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분의 글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불평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다른 소스(예: 서울대, 총동창회보 등)에서도 '핍'하는 방법을 채택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보 발행의 인력 부족이 문제입니다.

같은 얘기가 되지만 항상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인력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면 Professional Editorial Team을 기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편집장인 김원영 동문이 원고도 모으고 디자인도 모두 맡아서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이나 편집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15명 내지는 20여 명의 동문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하여 주기 때문에 그런대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미주 동창회보 재정이 확보되어서 위에서 말한 것이 가능하기를 바라는바, 서울대 미주동창회 기금, 즉 SNU-AAUSA CENTURY FOUNDATION의 목표액(3백만불)이 달성되는 날에는 그러한 꿈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상래 (수의 62)
미주동창회 회장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경애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

이번 4월호 회보가 300호가 됩니다. 25년을 꾸준히 발행해온 셈입니다. 아무런 재정 뒷받침이 없이 막연하게 동문들의 선의를 믿고 출범하여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회비로 충당되는 회보 발행은 '회비 자체'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근래 수년간 약 1,000명의 동문들이 연간 75불의 회비를 내고있는데 현재 매달 6,000부 정도를 발행, 발송하는 경비의 반년치도 채 되지 못 합니다. 나머지는 동문들의 후원금과 회장들의 도네이션으로 모자란 경비가 충당되니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왔으니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1990년대초 당시 서울대학교 조완규 총장께서 미주 각 지역 동창회 간의 단합과 본국 동창회와의 유대를 위하여 미주총동창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약속하시어, 그 행동 지침으로 미주 서부(로스엔젤레스) 지역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시던 김영기 (공대 55) 회장님과 동부(워싱턴 DC)에서 지역 동창회장을 역임하셨던 박윤수(문리 48) 회장님과 상의하셔서, 김영기 회장님

으로 하여금 '서울대 총동창회 재단'을 구성하시고, 박윤수 회장님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초대회장으로 모시어, 오늘날 본 동창회가 창립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당시 필자는 김영기 이사장님을 모시고 재단 사무국에서 봉사하던 중, 넓은 미주 전역에 사시는 많은 동문들의 소통과 단결을 위하여 우리만의 동창회보의 필요성을 강

>> P 3 아래 계속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보 창간호 (1993년 6월 15일 발행)



이종도 (공대 66)
창간 당시 사무총장

동창회보 창간 발행을 회고하며

그간 재미 서울대학교 동문의 정보 교환과 유대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회보가 지난 25년간 계속 발행과 발전을 거듭하여 어느덧 300호에 즈음하고 있음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자축함과 동시에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제28차 평의원 회의, 뉴욕

2019년 6월 21~23일 (금, 토, 일)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 카네기 홀 축하 음악회, 6월 22일 오후 8:30

호텔 예약과 음악회 등 자세한 안내는 P 18

미주 동창 회보 300호 기념 특집



박윤수 (문리 48)
초대 회장

SNUAA-USA

발전을 위한 제언

서울대학교 미주 총동창회 창립총회가 1991년 6월 1일에 워싱턴 DC 근교에서 조완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후 벌써 28년이 지났습니다. 전 미국지역에 산재한 동문들을 한 기관 속에 묶어 보겠다는 의욕으로 창립총회에 모여든 워싱턴, 남가주,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지역의 동문 50여 명의 열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동안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은 30개의 지역 동창회를 가진 전국 동창회로 발전하게 된 것은 동문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창회의 첫째 목적은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촉진하는 데 있고, 둘째는 의욕을 통해 기금을 작성해서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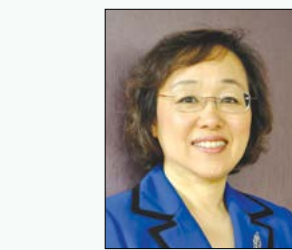
첫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문들이 친목을 통해서 동창회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동창회의 친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사교적 행사를 통해서 친목을 촉진할 수 있으나 한편 이웃 봉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길러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학 사업이나 이웃 돕기 운동 등 여러 가지 사회사업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선택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지역단체들이 하는 여러 문화, 사회 사업에 참여 또는 공동 주최로 서울대학 동창회가 다양한 각도에서 지역봉사단체 참여를 통해서 동문들이 친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처음 동창회가 창설될 때는 확실히 “모교 발전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발전 기금에는 여러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미주동창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택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창설 당시 제안된 안건 중에는 미국에 연수하러 오는 교수나 박사 후 과정을 밟아온 연구원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지역 사회 단체참여를 통한 친목의 육성, 2. 동창회 기금의 효과적인 관리 활용, 3. 젊은 세대 동문들의 참여 유도. 세가지 vision을 추진 하기를 제안합니다.

축하합니다



손재욱 (가정 77)
13대 회장

2019년 4월에 300번째 동창회보를 발간하게 됨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주동창회를 위해 수고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 그리고 윤상래 회장님 및 현 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여명의 회원들이 보내 주신 회비와 후원비로 동창회가 25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25년 전 1994년 4월은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1994년 4월에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지 일년 차 된 남편과 함께 집차고를 개조한 오피스에서 파르타임 도면기술회사와 함께 구조설계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적과 같은 25년을 보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현재는 50명의 직원 그리고 미국내

세 지역에 지부를 두고 필라델피아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주동창회는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26개의 지부를 두고 7,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일년 예산이 \$250,000 이상인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장을 중심으로 지부 임원들이 협력해서 2년씩 임기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속에 특히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눈과 귀와 힘이 되어 동문 간의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제는 80학번 이후 동문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13대 회장이 되었을 때 가장 중점을 두



이명옥 (공대 59)
8대 회장

만시지탄이라고 할까요. 나의 생각을 차기 회장단에게 인계했으면 합니다. 회보를 보지 않아도 이항렬, 백순두 등의 글로 시작됐지요. 마치 신문사가 사실과 오피니언 난을 통하여 일방통행으로 독자를 대하듯이 말입니다. 피로감을 나만 느꼈을가요.

동창회보는 신문과 다르겠지요. 예를 들자면 백순님이 본인의 글은 일 년에 한

발전을 위한 제언

번 싣고 나머지는 미주는 물론 한국까지도 두루 살피며 매일 다른 얼굴로 경제에 관한 기사를 실리도록 했으면 했지요. 정치에 관해서는 더욱더 목소리 내기를 원하는 동문들이 많겠지요. 회보 편집자가 너무 율타리들 속에 빠져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화신 미안합니다.

좋은 하루하루 보내십시오.



오인한 (문리 63)
12대 회장

지역동창회 간에 좋은 점들을

서로 벤치마킹하며

함께 발전하자.

회보 발행 300호 발행에 즈음하여 제14대 윤상래 회장단 편집위원회에서 시기 적절한 기획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제12대에서는 집단 의식과 집단 지성을 시대정신으로 잡고 동창회의 번영을 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미래와 같은 서울대 동문들이 뭉치려면 필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영구적인 발전을 추구하려면 회장단과 임원들이 젊어져야 하는데 별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지역동창회에 따라서는 세대교체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수도 워싱턴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지난 2004년 (필자가 지역회장)부터 육

성해 온 아크로폴리스 모임 (1980-1999 학번), 2018년부터 사로수 모임 (2000학번과 그 이후)을 육성하고 있어서 이제는 두 모임이 합동 모임도 하고 있으며 피크닉, 총회, 송년회를 할 때면 전체 참가자의 반을 차지할 정도가 되어서 세대교체가 잘 일어 나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모임은 이제는 자력으로 저녁비용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제 막 시작한 사로수 저녁 모임 때 드는 비용은 워싱턴 동창회 전임 회장님들 중에 3-4명이 지원하여 동참하고 교류하며 비용을 해결하고 있는데 자원은 전임회장님들은 다음 모임을 기다리게 됩니다.

워싱턴 동창회 경험으로는 다른 지역 동

년들과 관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얻었으며 저의 삶이 그만큼 더 풍부해졌습니다. 어느 일이나 말했다고 나서는 것은 시간과 성의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봉사는 참관계를 이루어 주는 기반입니다. 미주동창회의 발전은 곧 우리의 발전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모교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4월에 한국의회 100주년 기념행사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순간임을 되새기며 미국에 흠어져 사는 동문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운 마음을 전합니다.

미주 동창 회보 300호 기념 특집



김은종 (상대 59)
11대 회장

감사한 마음을 전함

수고 많이 합니다. 삼월 마지막 날 집 앞의 Rainbow Harbor에 나갔다가 만난 바다는, 겨울이 지난 다음 여름이 가까이 옴을 알리듯 짙은 푸른색을 띄고 씩씩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지만, 단정하게 품에 안기었다. 마치 누구처럼.

윤상래 회장을 위시한 임원들이 "서울대학 미주 동창회"를 성심껏 잘 이끌어 주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더욱이나 적

은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 동창회의 위상을 잘 보존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숙원인 재정자립은 모든 회원들의 더 깊고 넓은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일로 앞으로 "서울대학 미주동창회"를 이끌 회장님들이 이루어야 할 숙원사업이다. 좋은 글들을 보내서 동창회보를 풍성하게 해 주신 동문님들도 계속해서 기고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창회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주동창회 회장단을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도시 (한인 인구수)로 옮겨서 운영해 보는 실험을 지난 제13대와 현 제14대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13대에서는신세대(?) 77학번 손재욱 회장님이 한인 인구 중소도시 Philadelphia에서 처음 테스트 케이스로 맡았었고 잘 해 내셔서 많은 동문들의 격정을 불식시켰고, 또다른 중소 도시 Boston에

서 윤상래 회장님이 또한 잘 해내서 대도시만 해야 된다는 개념은 불식되었다고 느껴지는데, 중소도시로 돌아 보니 역으로 4개 대도시 동문회 (남가주, 뉴욕, 워싱턴 DC, 시카고)에서는 언제나 차례가 오나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지역동창회는 활동이 젊은 동문들에게로 전이되어야 하고 미주동창회 회장단이 옮겨다녀야 함과 동시에 재정적 확립을 이루어야 하는 영구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고 보여집니다.

총동창회 제2대 강수상 (의대 47)회장이 계신 시카고를 거쳐 제3대 이병준 (상대 55)회장이 계신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동안 계속 신론 발행이 이어져 왔다. 이즈음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재단'은 서울대 미주총동창회에 통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후 회보도 미주총동창회가 발행하고 있다.

이 기회에, 창간호 발행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주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사재를 쓰시며 실행에 옮기셨던 김영기 이사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사명감에 모든 공로를 드리고 싶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때 그분의 꿈과 정열이 씨앗이 되어 300회 발행을 하는 동안 오늘날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발전에 큰 기여가 되었음을 우리 모두와 함께 기뻐하실 것이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a.org / www.snuuaa.org

동창회보 4월호 (300호) 편집회의



뒤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영민, 고종성, 김원영, 정태영, 김병국, 정한용, 이상은, 백문성, 김재석, 이정수, 정수민, 배지선, 정선주, 고일석, 윤상래 회장, 김은종, 박영철, 이강원 동문

【기사: 김원영】

3월 23일 토요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4월호(300호)를 위한 편집회의가 열렸다. 열여덟 분의 편집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300 모양의 촛불이 올려진 축하 케익의 커팅을 했다. 축하 단체 사진도 찍었다. 회의 첫 순서인 4월호 드레프트 설명 후, 구체적인 300호 특집에 대한 논의를 했다. 참석위원 모두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고 결론을 만들었다. 그리고 회보 커버에 창간호 이미지를 구해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창간호를 구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거의 포기할 즈음 어려서리 그 이미지를 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uaa.org / news@snuuaa.org

300호 2019년 4월 SNU Alumni Association USA |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Fax: 978-353-1882 | 발행인: 윤상래 편집인: 이영민

미주 동창회보 300호 발행, 동문께 깊이 감사

이번호는 4월호 300호가 됩니다. 25년째 꾸준히 발행해 온 셈입니다. 다양한 제창 활동이 없이 막연하게 출판물을 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 저는 '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동문들의 호의로 유지되는 회보 발행은 회보 자체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현재 4년간 약 1,000명의 동문들이 연간 75달러의 회비를 내고 있는데 현재 약 600명 정도를 발행, 발송하는 데만 필요한 비용입니다. 회보 발간을 위해서는 동문들의 후원금과 회장들의 도네이션으로 보충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온(고)나 세상이 좋게는 없다"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회보로 어려운 일입니다.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감사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 같은 애기가 되지만 항상 부족한 애산이기에 때때로 중언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허락한 Professional Editorial Team을 고용하는 것이 해마다 될 것입니다.

현직은 한일합영관 관장인 동문님들도 회보로 300호를 25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데,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20여 명의 동문들이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온(고)나 세상이 좋게는 없다"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회보로 어려운 일입니다.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감사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 같은 애기가 되지만 항상 부족한 애산이기에 때때로 중언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허락한 Professional Editorial Team을 고용하는 것이 해마다 될 것입니다.

현직은 한일합영관 관장인 동문님들도 회보로 300호를 25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데,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20여 명의 동문들이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온(고)나 세상이 좋게는 없다"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회보로 어려운 일입니다.

김은종 (상대 59)
미주동창회 회장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감사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 같은 애기가 되지만 항상 부족한 애산이기에 때때로 중언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허락한 Professional Editorial Team을 고용하는 것이 해마다 될 것입니다.

현직은 한일합영관 관장인 동문님들도 회보로 300호를 25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데,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20여 명의 동문들이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온(고)나 세상이 좋게는 없다"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회보로 어려운 일입니다.

김은종 (상대 59)
미주동창회 회장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감사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 같은 애기가 되지만 항상 부족한 애산이기에 때때로 중언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허락한 Professional Editorial Team을 고용하는 것이 해마다 될 것입니다.

현직은 한일합영관 관장인 동문님들도 회보로 300호를 25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데,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20여 명의 동문들이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온(고)나 세상이 좋게는 없다"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회보로 어려운 일입니다.

김은종 (상대 59)
미주동창회 회장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감사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 같은 애기가 되지만 항상 부족한 애산이기에 때때로 중언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허락한 Professional Editorial Team을 고용하는 것이 해마다 될 것입니다.

현직은 한일합영관 관장인 동문님들도 회보로 300호를 25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데,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20여 명의 동문들이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온(고)나 세상이 좋게는 없다"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회보로 어려운 일입니다.

김은종 (상대 59)
미주동창회 회장

동창회보 300호를 발행하며 감사하는 서울대 미주 동문님: 같은 애기가 되지만 항상 부족한 애산이기에 때때로 중언부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재량이 허락한 Professional Editorial Team을 고용하는 것이 해마다 될 것입니다.

현직은 한일합영관 관장인 동문님들도 회보로 300호를 25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데,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20여 명의 동문들이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보에 참여하는 동문들은 회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서울대를 나온(고)나 세상이 좋게는 없다"고 믿어 왔으나 회보 발행은 회보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역 동창회 소식 및 동문 동정

미주동창회 주최

2019 브레인네트워크세미나 보스턴에서 성황리에 개최

소강표 박사 '나노 공정을 이용한 기술', 고종성 박사(사대 '75) '폐암치료 신약 개발', 최찬혁 박사(의대 '57) '방사선 폐암 치료' 발표



BNW 세미나, 질의응답시간, (왼쪽부터) 고종성, 최찬혁, 소강표 박사



BNW 세미나, 고종성 박사 발표



BNW 세미나, 최찬혁 박사 발표



BNW 세미나장

비한 도면을 설명하면서 양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로 암 부위를 보다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 발표자들은 고종성 박사팀이 개발한 '신약'이나 최찬혁 박사가 시술하는 '방사선 폐암 치료'가 한국인에게 많이 찾아오는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세 먼지로 많은 질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폐암은 차후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제 발표 후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세

미나 후 참석자들은 주최측이 마련한 식사를 하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담론을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동문 및 지역 주민들 7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인근 커네티컷에서 유시영 회장 내외분과 김창수 박사(의대 '60졸) 내외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에서 김성환(농대 '57) 동문 내외분, 뉴욕에서 신용남 차기회장(농대 '70) 내외분이 참석하여서 자리를 빛내주었다.

남가주총동창회

회장단 단대별 방문, 총동창회에 적극참여 요청

지난달 농대 방문에 이어 의과대 차민영, 김동훈 동문과 협조 방안 논의



시계방향, 손영아 동문, 김동훈 동문, 한귀희 회장, 차민영 동문



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대 신년회에 참석하여 총동창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부탁하면서 시작된 이 모임은 올해 일월 농대 신년 모임에 한 회장이 참석하여 동창회의 목적과 기대를 설명함으로써 계속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한 회장은 의대 동문들의 총동창회 행사 참여를 부탁했으며 두 동문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미주동창회의 중신이사로 등록을 하였다. 또한 6월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평소 서울대 배지를 즐겨 착용할 정도로 모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차민영 동문은 서울대인임에 자부심을 가진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으로 적극적인 동창회 활동에 참여와 협력을 다짐하였다.

【기사: 남가주총동창회】

4월 2일 오전 11:30, 엘메이 한인타운에 있는 JJ Grand Hotel 2층 우미관에서 남가주 총동창회 한귀희 회장(미대 68)과 부총무 손영아 동문(음대 85)이 의과대 차민영(의대 76), 김동훈(의대 71) 동문을 만나 의대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차민영 동문은 지난 몇 년 동안 총동창회 여러 행사에 적극적인 후원을 해 왔다. 지난해 12월 강신용 전 회장이 총동창회에 소원한 단대

이창신 동문 부부 모교에 1백만 달러 기부

모교에 '은창 장학금' 설립



이창신 (법대 57) 동문과 부인 이은숙 님

또한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산 전액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수한 신학대학, 그리고 이민 저소득 봉사기관에 모두 기부하는 유증을 마쳤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한국이 살아남아 기적의 성상을 이룬 것은 인재가 살아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미국정부,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이 가난과 전쟁 속에서 인재들을 남겨 두며 키워 냈던 것은 머리 속에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도 교육을 잘 받은 때문이라며 모교의 많은 인재들이 둔 걱정 하지 않고 학업에 몰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기사: 홍선례 문화국장】

이창신(법대 57) 동문과 부인 이은숙씨가 모교 서울대학교에 '은창 장학금'을 설립하고 유산 중의 1백만달러를 기부했다.

이창신동문 부부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를 오랫동안 숙고하다가 인재를 육성해 내는 것이 두고 온 조국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본인들의 유산 중에 40%를 모교에 기증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기증 부동산은 앞으로 매각 처리시 가격 상승분을 예상할 경우 거의 120만달러에 육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의 유증을 변호사와 함께 트러스트 펀드로 작성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LA 오피스를 통해 모교에 전달했다. 1백만달러를 학생들의 학자금 지급과 식비, 숙박비 등에 전액 사용할 것이며 학생 개인이 학비에 구매받지 않도록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을 법대생으로 국한하지 않고 서울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장학금 사용을 지칭했다.

뉴욕지역 골든 클럽 2019 신년교례회 개최

1부 총회, 2부 작은 음악회, 3부 여흥 및 경품추첨



신임 회원 소개, 한영수(의대 61), 권정택(의대 58), 오유섭(의대), 이정자(가족회원), 강교숙(간호 73), 이준행 명예회장, 신진식(농대 57), 조상근(법대 69), Mrs. 조상근, 손경택 회장

【기사 출처: 뉴욕 골든 클럽 소식지 4월호, 허유선】

뉴욕지역 골든 클럽의 2019신년교례회가 3월 23일 포트리 소재 더블츄리 호텔에서 8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신년교례회는 홍종만 (공대 64) 부회장의 사회로 1부 총회에서 손경택 (농대 57) 회장의 개회사, 새해 행사에 대한 당부, 이준행 (공대 48) 명예회장의 격려와 건강관리에 대한 덕담, 임호순 (공대 52) 고문의 축배사로 이어졌다.



조은솔, 오지선, 황소희, 장수훈, 이준희 동문

2부 순서에는 이준희 (음대 90) 회원과 음대 동문이 준비한 1시간에 걸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황소희 (음대 08), 바이올린 고은애 (음대 08), 테너 장수훈 (음대 09), 소프라노 채주원(음대 09), 더블베이스 조은솔 (음대 10), 호른 오지선 (음대 12) 등의 후배 동문들이 공연과 연주를 했다. 또한 골든 클럽의 컴퓨터 박사로 불리우며,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컴퓨터 강의를 하는 양인희 (농대 58)동문의 멋진 색소폰과 클라리넷 연주가 있었다. 김광수 (공대 72)동문의 재치있는 사회로 3부 순서인 여흥과 경품 증정의 즐거운 시간들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했다.

동문회에 공표를 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것에 대해 법대동문들은 놀라고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법대 64, 남가주 법대회장) 동문은 “이창신 선배는 평소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사시면서도 늘 동문들의 앞뒤를 챙겨 주시고 있다. 이렇게 소리 없이 기부를 하신

이창신, 이은수동문 부부의 서울대 장학금 이름은 부부의 이름을 따서 '은창장학금'으로 명명되었다.



Welcome to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NEW YORK OFFICE: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between 39th & 40th St)

Tel: 1.212.768.9144 / Fax: 1.212.768.4494 / Email: info@klcpagroup.com

“과학 계산(Scientific Computing) 입장에서 본 인공 지능이란”

워싱턴 주 동창회, 4월 SNU 포럼 개최

【기사: 김재훈 SNU 포럼 회장, 시애틀N】

워싱턴주 동창회 SNU 포럼의 4월 세미나가 지난 13일 뉴캐슬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강사는 현재 워싱턴대학(UW) 방문학자로 시애틀에 머물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황치욱 교수이다. 황 교수는 이날 ‘과학 계산(Scientific Computing) 입장에서 본 인공 지능이란’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황치욱 교수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계산 과학”은 “이론(정신공간)과 실험 및 관찰(물리공간)에 이어, 과학과 공학 연구에서 제 3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러한 과학계산의 입장에서 최근에 논의가 활발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 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다소 어려

운 주제이지만 황 교수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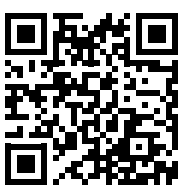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등장한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계산 과학”은 “이론(정신공간)과 실험 및 관찰(물리공간)에 이어, 과학과 공학의 연구에서 제3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학과 공학의 이론이 수학적 언어로 기술되듯이, 계산 과학은 과학 계산이라는 수학적 언어로 기술된다. 이러한 과학 계산의 입장에서 최

2019 SNU 포럼 발표 예정자

- ▶ 5월 – 황현정 박사 (UW 경영학과 교수): Social Network Services - Innovative use of social media by business
- ▶ 6월 – 조수행 박사: 경영과학의 추세와 응용 - Business analytics and its applications
- ▶ 7월 – TBD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근에 논의가 활발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 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황 교수는 모교 천문학과를 졸업한 후, Univ. of Southern Mississippi에서 Ph.D를 마쳤다.

- ▶ 8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Summer Picnic)
- ▶ 9월 – TBD: 세계적으로 유명한 Concert Hall 및 Opera House로의 여행 (Journey to The World Famous Orchestra Concert Halls and Opera Houses)
- ▶ 10월 – TBD: 박길호 팝칼럼니스트 (SBS 이숙영의 러브 FM 팝 해설자): 추억의 팝송 해설
- ▶ 11월 – TBD:
- ▶ 11월 (강의 및 종강 파티 장소) – TBD: 장소 제공하실 분 접수 (선착순)
- ▶ 12월 – No Seminar (due to conflict with Yearly General Meeting)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19년 1차 이사회 개최

장학금 \$2,000로 인상
동아리 모임 다양화하기로

【기사: 김병윤 회장】

3월 24일 Niles, IL 소재 Chateau Ritz Banquets에서 시카고 동창회 2019년 1차 이사회가 열렸다. 봄비 내리는 매서운 날씨에도 이사 54명 포함 총 91명이 모인 회의가 윤봉수 부회장 사회로 오후 5시부터 열렸다.

교과 제창 후 김병윤 회장의 개회 선언, 임원 및 참석이사 소개, 신입이사 추천 및 인준, 2018년 재무보고, 2019년 예산안 인준 및 행사계획보고, 장학금 관리위원, 장학금 선별위원 선출 등이 있었다.

신임 김병윤 회장이 추구하는 동창회의 변화와 성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뜻 깊은 회의였다. 변화의 일환인 장학금 인상이 전원 찬성으로 인준을 받았다. 기존의 일인당 장학금 \$1,000에서 \$2,000로 2019년부터 인상하기로 하였다. 1985년부터 시작된 장학사업은 시카고지역 장학사업을 선도하였고 현재 15만불의 기금이 있고 매년 기부액이 증가하고 있다.



기념 촬영

한편으로는 다양한 동아리 모임 증가 발표가 있었다. 동창의 소통과 융합의 장소인 동아리 확장의 일환으로 수요골프 모임을 우선 시작하였고, 이외에도 걷기, 달리기 등 다양한 계획이 추가되었다.

동창회의 질적 양적 성장과 변화에 대한 많은 기대와 이에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모임을 마무리하고 6시, 회장의 폐회 선언 후 사진 촬영과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다.

2019년 동창회 주최 중요 행사 일정

문의: snuaachicago@gmail.com, 회장 김병윤 (847-951-3297)

▶ 월, 수요일 골프 신설: 4/17, 5/8, 6/12, 8/14, 10/9 주관: 김현석 (847-809-2646)
▶ 춘계 골프: 5/11, 추계 골프: 9/14 주관: 김현석 (847-809-2646) 선택수 (773-715-4628)
▶ Art Institute of Chicago 신설: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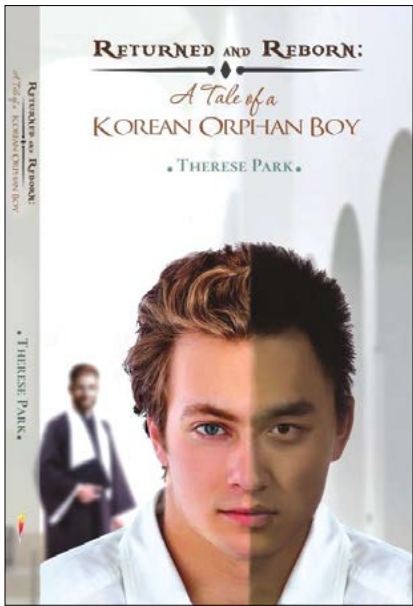
10:30am 주관: 변용국 (630-200-4066)
▶ Botanic Garden 야외 사진 촬영 신설: 5/16 주관: 김동희 (630-207-3312)
▶ 야유회 (Busse Woods Grove #30): 6/8 12시 글로벌 풍물공연 (설창고, 상모판관 등) Ravinia Park: 7/27 주관: 이영우 (630-207-2515)
▶ 2차 이사회: 10/13
▶ Rotary Santa Run: 12/7
▶ 총회및 송년회: 12/8

Therese 박 (음대 59) 동문

소설 『Returned and Reborn: a Tale of a Korean Orphan Boy』 출간



Therese 박 (음대 59)



【보도 자료 제공: Therese Park】

Therese Park 동문이 이번엔 네번째 소설 "Returned and Reborn: a Tale of a Korean Orphan Boy," (published by Austin Macauley Publishers, LLC. in New York, NY)을 발표했다. Therese Park 동문은 1963년, 모교 음대를 졸업한 후, 파리로 건너가 'Ecoloe Normale de Musique de Paris'에서 수학하고, the Kansas City Philharmonic 첼로 주자로 30년동안 연주 활동을 하다 1997년에 은퇴했다. 박 동문은 은퇴 후, 작가로 변신해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게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는 한국의 어린 여학생들을 소재로 한 첫번째 소설 "A Gift of the Emperor" (published in 1997)로 1998년 미국의 3대 북페어(로스앤젤레스, 마이아미, 하틀랜드)에서 주목할 만한 작가로 선정되었다. 이후 여러 곳에서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다음은 이번 네번째 소설의 간추린 내용이다.

"Returned and Reborn: a Tale of a Korean Orphan Boy," published by Austin Macauley Publishers, LLC. in New York, NY, explores the Korean society's con-

tempt toward children of mixed blood, of unwed mothers, and those born "imperfect" that caused the country to banish more than 200,000 innocent infants and toddlers to be raised by foreign parents, most of them in the U.S..

And this story is based on a true facts. The main character, the orphan, is the illegitimate son of an influential American Catholic Priest, who, with his five Jesuit Brothers, established the first Catholic college for both men and women in Seoul in the 1960's, which today is recognized as the best adult education center in arts and humanity in Asia.

이지원

AI 관련 서적 『인공지능과 음악』 출간



이지원



【기사: 처음박스 보도 자료】

이정수 (공대 71) 동문의 자제 이지원 양이 '인공지능과 음악, 대한민국 1호 AI 뮤직 컨설턴트의 미래 음악 이야기' (처음박스사)라는 제목으로 AI 관련 서적을 출간했다. 음악은 각 시대의 문화와 기술을 반영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음악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이 책은 앞으로 음악세계에 인공지능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보여주는 책이다. 다음은 이 책의 소개글이다.

"인공지능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을 지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즉 『멋진 신세계』나 『1984』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처럼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음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전적인 악기를 이용해 연주하고 작업하던 기존 음악가들이 설 자리가 줄어드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음악을 직접 연주해서 녹음해야 했지만 이제는 악기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수준 높

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음악산업의 발전이 음악가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만 할까?

『인공지능과 음악』의 저자이자 피아니스트 이지원은 프랑스 요한손의 "상식적 가설을 뒤집으라"는 말처럼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악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법을 인공지능 업계에 몸담았던, 음악가로서는 독특한 경험을 통해 모색한다."

피아니스트 이지원은 이스트만 음대 졸업, 동대학원 석사, 러거스 뉴저지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아티스트 인터네셔널 콩쿠르에서 특별상, 라이징 아티스트 콩쿠르 입상했다. 2014년 귀국 이후 >>

이태상 (문리 55) 동문

수필집 『코스미안의 노래』 출간



이태상 (문리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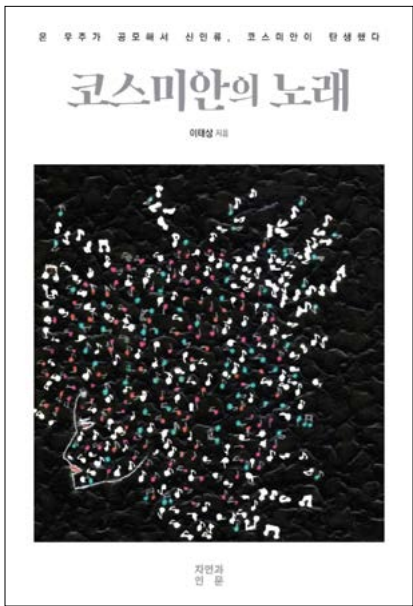
【기사: 자연과 인물 보도 자료】

이태상 (문리 55) 동문이 지난 4월 17일 수필집 '코스미안의 노래' (자연과 인물 출판사, 2019)를 출간했다. 이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코리아 타임즈 기자, 미국 출판사 Prentice-Hall 한국영국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글로벌 신문 코스미안 뉴스 회장이다. 다수의 저서, 번역서가 있으며 현재 뉴욕에서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출판사에서 소개한 '코스미안의 노래'의 소개 글이다.

가슴 뛰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태상 작가가 일생을 통해 얻은 '코스미안' 사상을 쉽고 재밌게 엮은 책이다. 온 세상을 주유하고 돌아와 얻은 깨달음을 맑고 거침없는 언어로 펼쳐놓고 있다. 사르트르보다 심오하지만 담백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칸트보다 깊지만 잘난 체 없는 명료한 글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누구나 친구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책이다.

가볍게, 더 가볍게 살아야 높이 날 수 있다. 무거운 것들을 지고 살아가면 날 수가 없다. 가슴 뛰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살아야 한다. 변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새장을 열고 나



와 맘껏 하늘을 날아봐야 새의 자유를 알 수 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온 우주가 공모해 탄생한 신인류 코스미안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코스미안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완성된 우주적 인간이다. 작가가 만들어낸 신조어 코스미안은 가슴 뛰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작가는 가볍게 살라고 말한다. 무겁게 사는 자는 바보라고 말한다. 문제없는 문제를 만드느라 수고하지 말고 신나게 즐겁게 뜨거운 태양처럼,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라고 말한다. 우주는 무궁무진하고 그 우주가 곧 나 자신이다. 이념에서 탈출하고 사상에서 벗어나야 내가 보인다. 종교를 찢고 나와 더 너른 세계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코스미안이라고 한다.

조재길 (사대 61) 동문

각종 마라톤 대회 참가하며 한반도 평화기원 메세지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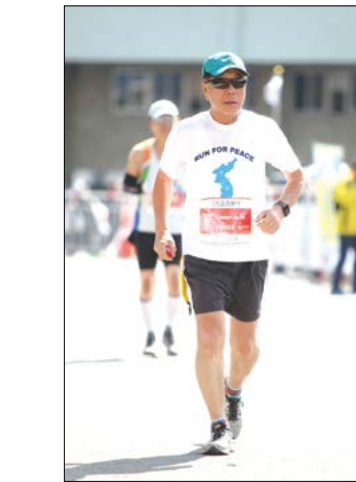
【기사 제공: 조재길 동문】

한미평화연구소 소장으로서 있는 조재길 (사대 61) 동문이 지난해 9월부터 하늘색 한반도 지도와 '평화를 위한 달리기(Run for Peace)'란 영문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주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조 동문은 한국전 종식과 한반도 평화 기원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9월 16일 독일에서 열린 베를린 마라톤 대회부터 '엔드 더 코리안 워 포 피스(END KOREAN WAR FOR PEACE)'란 영문이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출전했다.

조 동문은 2010년, 마라톤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통산 출전 횟수 80회를 돌파했다. 그의 최고 기록은 71세이던 지난 2014년에 LA 아주사마라톤대회에서 달성한 3시간 50분이다.

세리토스 시장을 지낸 조 동문은 '북한은 변



하고 있는가(1990)' '한반도 핵 문제와 통일(1994)' '통일로 가는 길이 달라진다(1998)'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길(2006)', '평화가 먼저다(2013)' 등 한반도와 북핵 관련 문제를 다룬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평화가 먼저다'의 영문판은 오는 8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미국 실리콘 벨리에 본사를 둔 기업 에이아 이브레인 소속인 영리더십 미래재단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며 인공지능을 접

하게 되어 이분야에 몰입하게 되었다. [문의: 201-566-8142]

이준행 (공대 48) 동문 구순 잔치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



【기사: 김원영 편집인, 뉴욕】

뉴욕지역 골든 클럽의 명예 회장인 이준행 (공대 48) 동문의 구순 잔치가 지난 3월 20일 뉴욕 근교 펠리스트 중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잔치는 가족, 친지, 다수의 동문 등이 참석해 이 동문 부부에게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다. 골든 클럽(회장 손경택)은 구순을 맞이 하신 기념으로 그동안 여러 행사를 하며 이

명예 회장이 활동하셨던 사진들을 모아 액자를 만들어 증정했다. 이날 이 회장은 '준이 장학금' 소개와 그동안 살아 오신 경험담, 소회도 밝히시고, 가족도 한 분 한 분 소개하며 참석인들을 위해 잔치 분위기를 리드하셨다. 이 회장은 요즘도 운영하시는 회사에 매일 출근하시며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을 유지하시고 계신다.

2019년 4월~5월 ACRO 인문 강좌 및 독서회 안내

1. **인문 강좌:** 매주 화요일 저녁 6:30 PM
장소: 가주국제대학교강당, 3130 Wilshire Blvd., #303, L.A., CA 90005
문의: 310-292-2649, 714-742-9215

2. **독서회 모임:** 매월 첫째 금요일 6:30 PM
장소: 866 S. Westmoreland Ave., L.A., CA 90005 (배운범 치과 로비)
문의: 714-742-9215, 213-291-5657

강좌 227회	특별강좌	4/26/2019	금 6:30 PM	"생명모성: 세계평화의 길잡이"	김반야 박사
4월 27일 토요일 - ACRO 낭만 산책 및 독서회: Griffith Park 천문대/ Hollywood 산책 및 "봄나들이 불고기 잔치"					
강좌 228회	특별강좌	4.30/2019	화 6:30 PM	명상冥想 - 실천과 경험지도	김무신 (약 '64) 약학박사 Pha.Dr./법사
ACRO 낭만 독서회 19 회		5/3/2019	금 6:30 PM	Gabriel Garcia Marquez 작,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백년동안의 고독	참가자 독후감 토론
강좌 229회	정규강좌	5/7/2019	화 6:30 PM	남북/북미/남북미회담: 조선반도의 운명	김윤경 (공 60)
강좌 230회	정규강좌	5/14/2019	화 6:30 PM	인류사: 한국의 민족종교	이원익 (문 73) 법사
강좌 231회	정규강좌	5/21/2019	화 6:30 PM	영미문학: 미국불교강좌 2: Jack Kerouac의 "Dharma Bumps" 분석	김지영 (사 69) 변호사
강좌 232회	정규강좌	4/28/2019	화 6:30 PM	우리문학: 현대문학편	김학천 (지 71) 치의사

미주 동창회 제28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6월 21일 (금요일)	6월 22일 (토요일)	6월 23일 (일요일)
1:00 pm – 2:00 pm 등록 접수	6:30 am – 8:30 am 조찬	8:00 am – 10:00 am 지부 회장단 모임
2:00 pm – 3:20 pm 강사 1	9:00 am – 5:00 pm Spouse program (City tour, Metropolitan Museum 방문)	10:00 am – 3:00 pm West point & Hudson River 관광
3:40 pm – 5:00 pm 강사 2	9:00 am – 12:00 pm 제28차 평의원 회의	
5:30 pm – 9:30 pm 환영만찬	12:00 pm – 1:00 pm 오찬	
	1:00 pm – 4:00 pm 제28차 평의원 회의	
	6:30 pm – 10:00 pm 축하음악회(카네기홀)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제28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19년 6월 21일 (금) ~ 23일 (일)
장소: DoubleTree by Hilton Hotel Fort Lee,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USA
Tel: 201-461-9000

리학하고, group code에 F71을 타입 하시고 enter key 누르시면 예약을 하 실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 가격 (\$139.00 plus tax, 14.625% / night)은 평의원 회의 기간 (6월 20일~24일) 동안 만 적용됩니다.

- 도착시간을 알려주면 도착 직후, 드라이 버가 전화로 연락 줌
- 2 Yellow Cab 이나, 우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비용이 한인 Call Taxi 보다 15~20% 비싼편
- 3 응급 상황이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다음 임원진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남, 646-523-9606
허유선, 973-865-1749
문현호, 646-770-7028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에 도착 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b 또는 우버를 이용하여 호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한인 Call Taxi 안내

JFK 공항 Taxi: 21 miles (\$50+Toll=\$70)
LGA 공항 Taxi: 14 miles (\$35+Toll=\$55)
EWR 공항 Taxi: 20 miles (\$45+\$14=\$59)

*** 한인 Call Taxi (김 과장):**

718-888-8888, 718-888-9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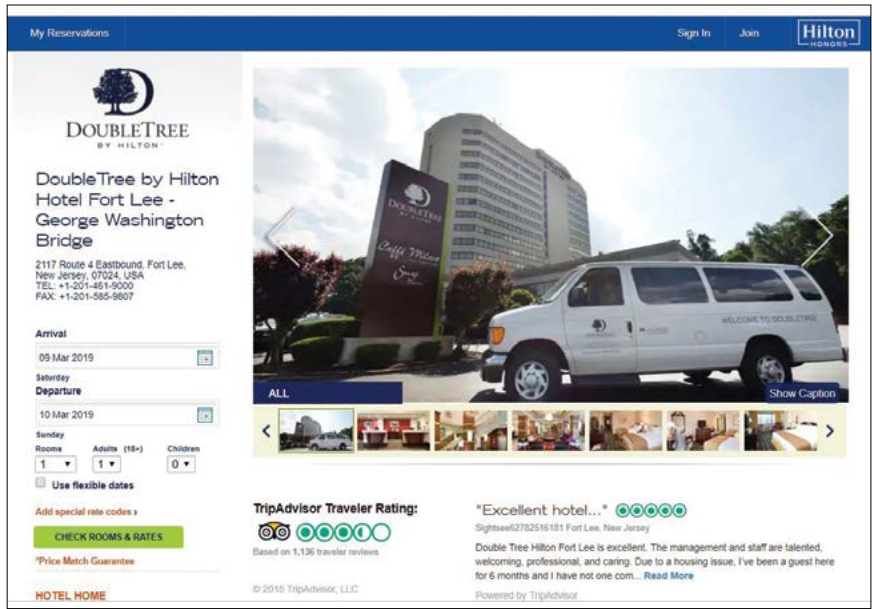
*** 한인 Call Taxi는** 공항 도착 24시간 전에 예약하고, 예약시, 항공사, 항공편 및

호텔 예약 안내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2019년 6월 9일까지 예약을 하셔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특별 할인 가격을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Room rate: King or Double Occupancy \$139.00 plus tax, 14.625%/night) 더블 룸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더블룸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최용렬 님 (201-582-5214)
위 호텔 직원분께 직접 전화로 예약하시면 편리합니다.

2 서울대학교 예약사이트
www.fortlee.doubletree.com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Special rate code를 클릭



(호텔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축하 음악회

Summer Fantasy

Saturday, June 22nd 2019 at 8:30 pm
Zankel Hall at Carnegie Hall
7th Ave. between 56th and 57th St. New York, NY 10019

TICKET 예매 : Carnegiehall.org | CarnegieCharge 212.247.7800
Box Office at 57th and Seventh

문의 : 718.463.3131 / \$100 \$50 \$40 \$30

Soprano: Mi Ja Kang

Philharmonia Boston / Soloists of New England

테너 : 문현호 바리톤 : 한경진 테너 : 장주훈 테너 : 노영환

주최 : 서울대 미주동창회 후원 : 서울대 뉴욕지역 동창회, 뉴욕지역 골든클럽

협찬 : SeAH Steel USA LIC HOTEL Peter Shin Law Firm Baby World Trading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FM82.7 NY RADIO KOREA 뉴욕라디오코리아 Hansu Enterprises 백승원 위장내과 KUKBO

Celebration Concert for 28th Delegate Assembly of SNUAA-USA
Presen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尋花 (심화)

김동근 (공대 60)

올 겨울 남가주는 유난히 눈 비가 많이 왔다. 보통 눈에 잘 안 띄던 10,000ft 급 San Gabriel 산맥은 흰 눈으로 마치 뭉게구름 피어 오르듯 파란 하늘을 돋보이게 한다. 계절은 어느덧 70도를 웃돌고, 카톡방 친구들은 아름다운 꽃 경치 사진으로 봄 소식을 전하노라 심심찮게 카톡 카톡을 올린다. 제영혜 씨는 Lake Elsinor 부근이 최고라 한다. 나 또한 4월 첫 주 가기로 한 Joshua Tree National Park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다. 砂漠(사막)의 野生花(야생화)는 까다롭기는 하지만, 한번 피면 대단히 靚麗(요란)하다. 비를 기다려 몇 10년 만에 피는 꽃도 있어, 한번 놓치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 北核(북핵) 관심은 한참 뒀다.

華萼(화사)한 봄이 오면 언제 보아도 좋은, 杜鵑(두보)의 絕句(절구)가 생각 난다.

黃四娘家花滿蹊 황사낭네 집 꽃이 골목길을 가득 메웠네
황사랑가화만혜

千朵萬朵壓枝低 천타 만타 꽃가지는 무거워 축 늘어지고
천타만타압지저

留連戲蝶時時舞 꽃 사이로 노니는 나비는 들락날락 춤추고
유연희접시시무

自在嬌鶯恰恰啼 아리따운 피조리는 짹짹 노래하네.
자재교앵흡흡제

이 詩는 杜甫의 江畔獨步尋花(강반독보심화) 중 6번째로 안록산의 난을 피해 중국 사천 성도 에 살 때 봄을 만나, 詩의 제목 처를 江邊(강변)을 혼자 걸으며 꽃을 鑑賞(감상)하는 詩다.

동네에서 유명한, 딸이 넷이나 되는, 색깔의 으뜸인 黃의 성을 가진 집 딸의 나무가 꽃이 만발한다. 꽃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늘어 질뿐 아니라 그 꽃 향기로 골목을 가득 메운다. 꽃을 찾아 나비도 피조리도 모여든다. 물론 잘난 총각 못난 총각들도 꽃을 鑑賞(감상) 하는 척 당장을 기웃거리며 모인다. 봄이 마침내 무르익었다.

새가 있는 곳에 어찌 감히 나비가 모이겠나 마는, 酷毒(혹독)한 겨울을 같이 살아 남은 衆生(중생)들이라 歡喜(환희)의 Rite 를 다같이 즐기자는 시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려는 것 아니겠나? 뜻을 이루지 못한 儒學者(유학자) 杜甫로 서는 매우 드물게, 즐거운 마음으로 쓴 詩다.

蹊(혜) : 좁은 길
朵(타): 늘어지다, 가지에서 휘어져진 꽃송이.
留連(유연): 헤어지기가 섭섭해) 계속 머무르다.
蝶(접): 나비.
恰(흡): 흡사하다(恰似~), 여기서는 중국 발음으로 새 우는 소리 (恰恰 qiàqià).
啼(제): 울다, (새나 짐승이)울부짖다.
畔(반): 발두둑, 가장자리, 경계.
尋(삼): 탐색해서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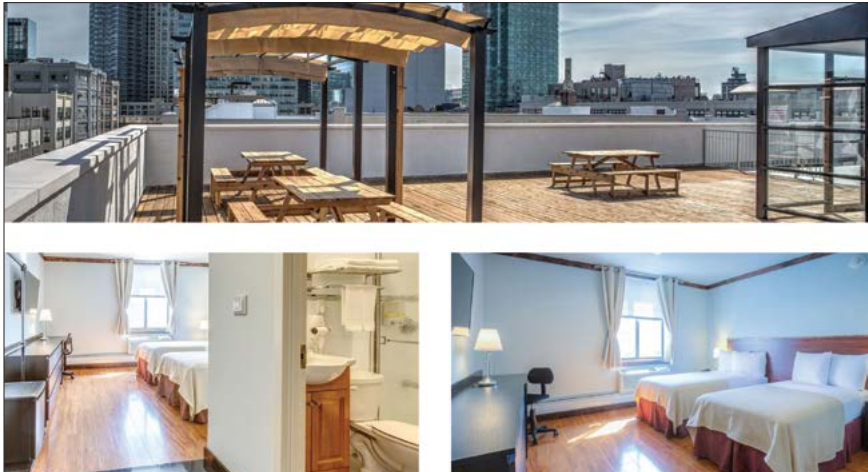
야생화 만발한 초원

제영혜 (가정 71)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캘리포니아의 들판이 완전 "악" 소리 나게 맛있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이름 모를 노랑, 주홍, 보라, 초록의 꽃들이 어우러져 온산에 물감을 뒤얹은 듯 하다.

Los Angeles에서 200마일 북상하여 Carrizo Plain National Monument를 찾았다. 남북으로 50마일 동서로 15마일 20만 에이커가 넘는 대평원의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끌려 연중행사로 한 번씩 꼭 찾아가는데 역시 올해도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곳도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군데군데 카메라를 들이미는 반가운 한국 사람도 눈에 띈다.

South entrance에서 North entrance 45 마일을 달리면 노란 색의 야생화 들판이 자태를 뽐내며 같이 사진 찍자고 나를 유혹하고, 차 도로에서 한 1마일 걸어 내려가야 하는 Soda Lake는 오래전엔 이곳이 바다였음을 증명하며 나를 꽃사이로 걸어 호수까지 가게 만든다. North entrance에서 Bakersfield로 향하는 58번 도로로 달리면 왼쪽으로 Temblor mountain을 끼고 내려오게 되는데 도저히 차를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장관이 계속된다.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초원의 야생화와 함께 하루를 보내며 자연의 대단함을 또다시 느끼며 또 각박한 일상을 살 에 너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김승호 (공대 71)

LIC HOTEL

At LIC Hotel, we emphasize cleanliness and comfort above all else and strive to provide our guests with the most convenient experience during their visit to the wondrous city of New York.

718-406-9788
reservations@lichotelny.com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김은한 (의대 60)
회보 고문

1921년 금관총에서 금관이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 금관은 의례 왕이 쓰는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는 함께 출토된 여성용 굵은 귀거리 (태환 이식)가 있어서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라는 것이 통설이 되었다. 발굴 유물로 금귀거리, 금팔찌, 금반지, 금동신발 금 장식류가 75 kg 이나 되어 상대적으로 무기류를 압도하고 있어 무덤의 주인은 여성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그러나 금관에 매다는 장식이 남성용인 가는 귀거리가 발견되어 무덤 주인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많게 되었다. 2014년에 금관총에서 “이사지왕도”(爾斯智王刀)라는 명문이 새겨진 칼집이 발견되면서 또다시 무덤 주인이 누구나는 논란이 떠오르게 되었다. 윤상덕 중앙 박물관 연구관은 금관총 봉분을 둘러싸고 밖은 호석의 둘레가 45m인데 동상 마립간의 호석은 50m가 넘는다고 하며 금관총은 마립간의 무덤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증언하였다. 또 창, 화살촉, 마구, 갑옷, 등 부장품을 분석한 결과 피장자는 남성이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사지 왕은 신라왕이 아닌 마립간이 아니라 6부의 최고위층인 귀족 신분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신라에서 왕의 호칭은 왕만 쓰던 것이 아니었다.

왕의 친척들에게도 갈문왕이라는 호칭을 주어 왕의 아버지, 장인, 동생, 여왕의 남편 등에게 특별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서 신라 초기에는 2인자 기능을 하고 있었다. 선덕여왕 남편은 음갈문왕 박수월 (朴水月), 또는 차질왕으로 불렸고 원성왕과 왕위 경쟁을 벌인 김주원은 명주 (溟州) 군왕으로 불렸다. 이처럼 금관총의 주인도 왕이 아니라 귀족 출신으로 보여진다.

II) 1924년에 발견된 금령총과 고동금관은 10여세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다는 내용은 이미 전주 컬럼에서 말한 바 있었다.

III) 서봉총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발굴되었다. 남성 고분에서 흔히 보이는 큰 칼이나 관모가 나오지 않고 태환 이식 귀거리를 하고 있어 여자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장품에는 곡옥을 꿰어 만든 목걸이, 금반지, 비취귀옥을 단 가슴 장식, 금팔찌 등을 참작하면 피장자가 여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장품 중에 은으로 만든 그릇은 연수원년 태왕신묘 (延壽元年 太王辛卯)라는 명문이 새겨져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든 무덤의 조성 연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구려 장수왕 (413-491)의 년호가 연수라는 점으로 미루어 신묘년은 AD 451년으로 생각된다.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때라 장수왕의 문화이 부장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신라 눌지왕 재위 년간이었다.

로 쌍분이다. 북분이 왕비의 무덤이고 남분이 왕의 무덤이다. 북분은 은제 허리띠에 부인대 (夫人帶) 라고 쓰인 명문이 있어 왕비의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남분은 60세 전후의 남자로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 여자 유골과 함께 매장되어 있었다. 발굴된 유물은 금관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은관과 금동관만 출토 되었다. 도대체 금관은 어디로 갔을까?

“요시미츠 쓰네요”는 그의 저서 “로마 왕국과 신라”에서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을 실성 마립간으로 보고있다. 그는 미추왕의 사위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며 성공왕족으로 금관을 쓸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성마립간은 성골이 아니라 “요시미츠 쓰네요”는 그의 저서 “로마 왕국과 신라”에서 황남대총 남분의 주인을 실성 마립간으로 보고있다. 그는 미추왕의 사위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다. 왕비는 미추왕의 딸이며 성공왕족으로 금관을 쓸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성마립간은 성골이 아니라 오 하였다. 이는 당시 석씨 세력이 몰라나고 김씨 쪽으로 금번 시기였고 문화적으로는 적석목곽분, 황금문화, 금관문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국제적으로는 고구려 신라가 연합하여 백제, 가야, 왜 세 나라가 동맹 관계에 있던 때로 내물마립간은 격등하는 제반 정세의 중심에서 최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사후에 세운 무덤도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겠는가.

내물, 실성 두 사람은 두명 모두 미추왕의 딸과 결혼했고, 두 명 모두 성공 왕이 아니었으며 두 명 모두 금관을 쓸 자격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황남대총의 주인일까? 눌지 마립간이 실성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죽인 사람을 고분의 주인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내물 마립간이 황남대총의 주인이다.

지금까지 금관을 쓸 수 있었던 6명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금관총의 주인은 귀족이었고, 금령총과 고동금관의 주인은 어린 아이였다. 서봉총은 성인 여성이 주인이었고, 천마총의 주인은 순장의 흔적이 없는 지증왕으로 김병모 교수가 주장하고 있다. 황남대총 북분은 왕비로 추정되는데 남분의 주인은 필자의 의견은 내물 마립간으로 추정되지만 앞으로는 금관의 주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 금관을 쓸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왕비는 금관을 쓰고 실성은 은관을 쓰고 누워있는 것이다. 실성이 눌지에게 피살 당했

제39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

특별출연: 이정석 박사 오보 독주, 뉴욕글로리아여성합창단(지휘:서혜영)

기쁨 되시는 예수, 주기도, 오 깊으신 사랑, 주이름을 찬양해, Green Sleeves, 노래의 날개위에 보리밭, 가고래, 내 맘의 강물, 강 건너 봄이오듯, 슈베르트 세레나데, 진달래꽃

감사의 말씀

서명선 회장님은 2000년 3월 제 1회 탈북난민들구출음악회를 열어 성공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탈북자들의 본거지인 중국 현지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산골짜기마다 무수한 탈북 여성들이 장의 노예가 되어 숨어있고, 대부분 탈북자들은 산속이나 외딴길 등지에서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숨어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탈북자들이 불쌍하면 강제로 복종시켜 종신 형무소로 보내거나 처형시키는 실용한 비극을 안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봄과 가을 지난 20년동안 탈북난민구출 음악회를 열어, 온 정성을 다해 헌신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 생명 살리기때 뜻을 함께 하신 가곡연구회 김은로 이사장님 내외분과 이사 최원남 여러분과 뉴욕동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귀한 도움이 수 많은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뉴욕동포들의 강동적인 동포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워나비의 은혜와 축복이 어려운 가정애 항상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 3월 22일
서명선인 두리하나 천 기 원목사 드림

초대의 말씀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희 뉴욕예술가곡연구회는 오는 5월 5일 뉴욕로신장로교회에서 제 39회 탈북난민구출 음악회를 갖습니다. 3대를 이은 최원남씨는 교주님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로 망을 것을 결심 하신 부끄러운 탈북자들을 25만명이나 되달서던 만일원전인 전야행위를 해왔습니다. 올해들어 남북한정부 모두가 탈북자들에게 대한 치우기 더욱 가혹해지던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뿐인 70년 민족분단의 비극도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정선문화 부재가 빛어낸 비극입니다! 온 국민이 깨어나 정선문화 혁신에 눈을 뜨려야 합니다! 소박, 정직, 자상, 사랑... 등 문화 정선을 공급해주는 가족보급이 절실히됩니다! 고인의 최한 우리의 탈북인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출하고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식시킬 가족보급운동을 펴는 오늘 음악회에 여러분 환한 환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오는 음악회 성공은 1,500 여명을 한국과 미국으로 구출시키고, 탈북자 구제에 목숨바쳐 헌신한 온 천기원 전교신남의 사역을 돕는 두리하나 USA (이사장 조영진 목사)로 전달됩니다. 뉴욕장성장악가들이 대거 출연하여 은혜로운 성가와 주악같은 한국가곡과 세계 명가곡을 독창과 중창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 놓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서 기쁨이 넘치는 문화행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 DATE : SUNDAY (일요일), May 5, 2019 at 6PM
■ PLACE: **뉴욕로신장로교회** (문석호 목사) HYO SHIN BIBLE CHURCH
42-15 166th Street Flushing, NY 11358
■ 주 최: **뉴욕예술가곡연구회**
■ 후 원: J&A USA(대표 김은숙), 두리하나USA(이사장 조영진 목사), 하은교회(교헌 목사), 동산교회(이봉삼 목사), 미동부대동문지연협회(회장 김현수), **한글국립보**, TKC-TV

2019년 3월 22일
뉴욕예술가곡연구회 이 서 정 김은숙
멜로코로전원동
최 장서명선 드림

TICKETS \$15.00 **예매처** ▲ **반디서점** 147-22 Northern Blvd. T. (718)353-4411
▲ **NY Art Songs** T. (212)867-6919 Manhattan



정선주 (간호 68)

세상의 끝을 가다

End of the World,
Southernmost point of the World

Cape Horn (55 58' 47" S)은 세상 끝에 놓여 있는 바다위로 1394 feet 올라온 작은 섬이고 칠레 영토이다. "Below 40 degrees latitude, there is no law; below 50, there is no God."



이곳은 항해자들의 무덤으로 여길 만큼 지나가기가 아주 힘든 곳이라,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지리시간에 배워서 기억나는 마젤란 선장도 Cape Horn으로 돌아오는 것을 꺼려하고 이 길을 피하다 현재의 마젤란 해협을 발견하게 된다. 1616년 네덜란드인 le Maire and Schouten가 Cape Horn을 발견하고 자신의 expedition을 도와준 네델란드 Kaap Hoom 지명 이름을 따서 Cape Horn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아침 7시 150명을 태운 Stella Australis Expedition ship 선장은 우리가 Cape Horn에 Landing 할 수 있다고 방송을 했다. Landing 할 chance는 50%라는데 우리의 운이 좋은 날이다. 배에서 몇명씩 Zodiac을 타고 가서 Cove에서 나무다리를 올라가야 한다. 와~ 멀리 높이 20 meter 되는 강철로 조각된 Cape Horn Monument가 우뚝 서있다. 16세기에서 20세기 사이 유럽에서 멀리 이곳 대서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Cape Horn을 지나갈 때 남극에서 물려오는 바람때문에 10층 건물 높이의 거센 파도와 조류 그리고 70 마일의 풍랑으로 10,000명의 선원들, 800대 배들이 이곳에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나는 기념비 앞에 있는 대리석 현판 위에 스페인말로 적혀있는 시를 보고 있었다. 누군가 영어로 번역해서 말 해주는데 그저 감격에 벅차게 들렸다. 지금도 칠레 시인 Sara Vial이 1992년에 쓴 시를 가끔 읽을 때 마다 Cape Horn이 생생하게 내 앞에 보이고 있다.



I am the albatross that awaits you
At the end of the world.
I am the forgotten soul of dead mariners
Who passed Cape Horn
From all the oceans of the world.



the Chilean Fjords

But they did not die
in the furious waves.
Today they sail on my wings
Toward eternity,
In the last crack
Of the Antarctic winds.



이 섬에는 오로지 한 가족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 날 새로운 가족이 이사 들어 오고 있었다. 너무 외로운 이곳에 오래 견디기가 쉬운 일이 아닐터이니, 툰두라 지역 기후로 이곳에는 나무는 하나도 없고 특별한 아주 낮은 식물만 살아 남아있다. 작은 등대와 조그만한 chape뿐 온 주위는 남극으로 가는 저 멀리 Drake Passage 바다만 보이는 듯 하다.



1914년 Panama Canal이 개통되어 많은 상선들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가기 위해 이곳을 항해하지 않아도 되어 선원들에게 천만다행이다. Celebrity cruiseship의 여행객들은 날씨가 좋아 운이 좋으면 그저 갑판 위에서 멀리 Cape Horn이 보인다고 환호성을 지른

다고 한다. Cape Horn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드물고 행운아이다)을 마지막까지 바라보면서 자연에 순응해야 함을 받아들이며 내려오는데 마음이 뿌듯하고 살아 있음을 다시 감사하게 여기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 이름이 선주(선선이 타는 배) 라 Cape Horn까지 올 수 있었고 살아 나가게 되는게 아닐까? 작년 Norway 여행하면서 유럽에서 제일 높은 장소인 North Cape 북위 71도에 들렀다. 너무 감격스런 순간이었다!



Ferdinand Magellan이 처음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지나간 사람이라 그의 이름을 따 Straits of Magellan이라 부른다.



우리는 Punta Arena에서 small Luxury Expedition ship에 몸을 담고 마젤란 해협 항해를 시작한다. Ainsworth Bay에서 내려 낙원에 온 듯 한 착각에 잠시 빠져본다. 이곳에서만 자란다는 빨간 보hong빛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해서 따 먹으며, 하이킹이 너무 특별했다. 작은 호수에 지워진 Beavers dam을 정확하게 보며, 또 무지개도 나타났다.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은 모두들 이곳에서 meditation을 하자고 해서 잠시 조용한 순간을 가져본다. Tuckers Islets에서는 Magellan-Penguins과 commorants를 수백마리를 보았다. 1832년 Charles Darwin이 HMS Beagle을 타고 Beagle Canal에서 가장 Beautiful Bay라고 불리우는 Wulaila Bay에 정착을 했다고 한다. 우리도 섬에 내려 하이킹을 한 후 정상에서 아주 아름다운 Bay를 내려 보며 모두들 숙연한 자세를 취한다.



4박 5일간 Expedition배를 타고 마젤란 해협을 지나 말로만 들었던 Beagle Channel, 그곳을 지나는 동안 Glacier Pia를 하이킹하고 숨어있는 Glaciers들을 찾아보며 내내 계속되는 설산과 Glaciers를 경관하게 된다. Chilean Fjords Cruise하는 5일간 WIFI없는 세상이라 신선한 생각만 하게 될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이 더 깨끗해졌듯 했다. 마지막날 아침 우리는 칠레를 떠나 Ushuaia, Argentina에 내린다. 이 작은 도시가 세상끝 도시라는 nickname으로 불린다. Cape Horn에서 북쪽으로 하루 걸려서 도착하였다. 이 항구에서 남극가는 배를 타게 된다. 하루하루가 낙원에서 지난 것처럼 행복했던 평생 기억이 될 The Wilderness Beyond: Patagonia, Tierra del Fuego (Land of Fire) and the Chilean Fjords 신선한 여행 감사합니다!!!



Puerto Natales를 거쳐 Punta Arena에 도착한다. 2번이나 Strait of Magellan을 보고만 갔지만, 그 위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지 못해서 무척 서운했었다. 1520년 포르투갈 선장

SNU Alumni Association USA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aa.org / www.snuaa.org

BY-LAW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 S. A.	
By-Laws	Amendments
CHAPTER MEMBERS	
Article 5. (Membership Certificates or Cards)	
The Board of Directors may, but need not, cause to be issued certificates or cards to evidence membership in the Corporation ("Membership Card or Membership Cards"). The fact that the Corporation is not for profit and without capital stock, and that any such Membership Card is non-transferable shall be noted conspicuously on the fact or back of any Membership Card which may be issued. Membership Cards, if issued, shall bear the signature or facsimile signature of the officer or officers designa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y bear the seal of the Corporation or a facsimile thereof.	
Article 6. (Membership and Dues)	
(1) The Corporation shall have two classes of members: "Regular Members," and "Honorary Members."	
(2) Any individual who was enrolled as a full time student of a college or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ho has residence in the U. S. A. shall be a Regular Member of the Corporation, provided that he or she is also a member of a Chapter of the Corporation.	
(3) A Regular Member of the Corporation shall be entitled to vote in the election of a Delegate in a proceeding provided in Article 13 hereof and in all proceedings at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as long as the Member is in compliance with annual membership due requirements provided for in Article 7 hereof and in good standing.	
(4) An individual who resides in the U. S. A. and who has made outstanding meritorious contributions to the enhancement of the honor or the development of the Alma Mater or the Corporation or has maintained strong ties with the Alma Mater or the Corporation, but who is not a Regular Member of the Corporation, shall become an Honorary Member of the Corporation upon resolution by the Delegates and his or her acceptance of the Honorary Membership. An Honorary Member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ny membership dues to the Corporation or its Chapters.	
Article 7 (Membership Dues)	
(1) Each Chapter of the Corporation may require membership dues from its members. Each Chapter shall fix the amount of membership due in consultation with the Corporation.	
(2) A Regular Member of the Corporation who is in compliance with the membership due requirements of a Chapter of which he or she is also a member shall be deemed to be in compliance with membership due requirements of the Corporation for all purposes.	
Article 8 (Record Date for Members)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Regular Members entitled to notice of or to vote at any meeting of Regular Members of the Corporation of any adjournment thereof, or to express consent to or dissent from corporate action in writing without a meeting, or for the purpose of any other lawful action, the Board of Directors may fix, in advance, a record date, which shall not be more than sixty days nor less than ten days before the date of such meeting, nor more than sixty days prior to any other action. If no record day is fixed, the record date for determining	

Regular Members entitled to notice of or to vote at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shall be at the close of business on the day next preceding the day on which notice is given, or, if notice is waived, at the close of business on the day next preceding the day on which the meeting is held; the record date for determining Regular Members entitled to express consent to or dissent from corporate action in writing without a meeting, when no prior act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necessary, shall be the day on which the first written consent or dissent is expressed. A determination of Regular Members of record entitled to notice of or to vote at any meeting of members shall apply to any adjournment of the meeting; provided, however,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ay fix a new record date for the adjourned meeting.

Article 9 (Members' Meeting)

(1)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may be held on the date and at the time fixed by the Board of Directors.

(2) Meetings of Regular Members shall be held at such place, within or without the State of Delaware, as the Board of Directors may, from time to time, fix. Whenever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fail to fix such place, the meeting shall be held at the registered office of the Corporation in the State of Delaware.

(3) A meeting of Regular Members may be call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r by any officer instructed by the Board of Directors to call the meeting.

(4) Written notice of all meetings shall be given, stating the place, date, and hour of the meeting. The notice of a meeting shall in all instances state the purpose or purposes for which the meeting is called. The notice of any meeting shall also include, or be accompanied by, any additional statements, information, or documents prescribed by the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the "General Corporation Law").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General Corporation Law, a copy of the notice of any meeting shall be given, personally or by mail, not less than ten days nor more than fifty days before the date of the meeting, unless the lapse of the prescribed period of time shall have been waived, and directed to each Member at his or her record address or at such other address which he or she may have furnished by request in writing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rporation. Notice by mail shall be deemed to be given when deposited, with postage thereon prepaid, in the United States mail. Notice need not be given to any Member who submits a written waiver of notice signed by him or her before or after the time stated therein. Attendance of a Member at a meeting of Members shall constitute a waiver of notice of such meeting, except when the Member attends the meeting for the express purpose of objecting,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to the transaction of any business because the meeting is not lawfully called or convened. Neither the business to be transacted at, nor the purpose of, any regular or special meeting of the Members need be specified in any written waiver of notice. In lieu of written notice of meeting, the Corporation may publish the notice of meeting 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 S. A. which is a monthly newspaper published by the Corporation not less than twenty five nor more than fifty days before the date of meeting.

(5) Meetings of Regular Members shall be presided over by the President of the Corporation, or if the President is not present, then by a Honorary President (defined hereafter) of the Corporation.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rporation, or the Secretary of General Affairs in the absence of the Secretary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남가주 SANTA/VA	박찬호 (농대 63)* 박창규 (약대 59)*	이정근 (사대 60) 이준호 (상대 65) 이충희 (공대 53) 이종도 (공대 66) 박태호 (치대 66) 박호현 (의대 52) 박흥근 (공대 64)* 방명진 (공대 73)* 방호진 (약대 56) 변영근 (수의 52) 배동완 (공대 65) 배병욱 (음대 58) 배호식 (문리 52) 백원일 (농대 70) 백옥자 (음대 71) 백인보 (미대 69) 백혜란 (미대 70) 서동영 (사대 60) 서명희 (농대 67) 서영석 (문리 61) 성주경 (상대 68) 김상찬 (문리 65) 김석홍 (법대 59) 김진기 (법대 59) 김성호 (법대 64)* 김세윤 (문리 65)* 김세진 (공대 69) 김수현 (사대 57) 김순자 (치대 57) 김현철 (간호 61) 김영 (수의 63) 김영덕 (법대 58) 김영룡 (사대 60)* 김영순 (음대 59) 김원택 (약대 59) 김원탁 (공대 65) 김원호 (약대 63) 김욱경 (가정 60) 김은경 (음대 66) 김의신 (의대 60) 김인중 (농대 74) 김일영 (의대 65)* 김정애 (간호 69) 김재영 (공대 62) 김종식 (사대 58)* 김종표 (법대 58)* 김준일 (공대 62) 김진식 (공대 66) 김진형 (문리 55) 김창무 (음대 53) 김창신 (사회 75) 김태윤 (법대 53) 김태호 (상대 57) 김현철 (의대 57) 김희재 (사대 66) 김희창 (공대 64) 나두성 (의대 66) 나민주 (음대 65) 나승욱 (문리 59) 노명호 (공대 61)* 문종호 (문리 59) 문병하 (법대 51)* 문인일 (공대 51) 박대균 (수의 57) 박명근 (상대 63) 박부강 (사대 64) 박우성 (사회 77) 박원준 (공대 53) 박인수 (농대 64)* 박인창 (농대 65) 박임하 (치대 56) <td>이정근 (사대 60) 이준호 (상대 65) 이충희 (공대 53) 이종도 (공대 66) 이재권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이재선 (상대 58) 이창무 (공대 54) 이정광 (상대 61)* 이현찬 (치대 75) 이홍표 (의대 58)* 이희홍 (공대 68) 임간식 (음대 54)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석중 (공대 51) 임창희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윤희 (사대 54) 장인숙 (간호 70) 장정용 (미대 64)* 전경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범수 (농대 71) 전상국 (사대 52) 정균희 (의대 66)* 정동규 (공대 57) 정두중 (가정 72) 정승만 (의대 66) 정연용 (상대 63)* 정여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진우 (의대 66) 정철룡 (의대 55)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형태 (상대 69) 정 환 (공대 64) 정희영 (치대 58) 조동준 (의대 57) 조만영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순자 (치대 57) 조성식 (공대 55) 조영길 (공대 50) 조희석 (치대 65)* 오승자 (사대 59) 이건영 (문리 71)* 이건일 (의대 62) 이광재 (공대 59) 이근원 (공대 67) 이기에 (사대 52)* 이명선 (상대 58)* 이민정 (의대 83) 이방기 (농대 59) 이범식 (공대 61) 이병준 (상대 6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소희 (의대 61)* 이수희 (간호 47) 이시한 (문리 52) 이영송 (치대 63) 이영일 (문리 53) 이영현 (간호 70)*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의대 65)* 이은경 (간호 80) 이익삼 (사대 58)* 이정희 ()</td> <td>이정근 (사대 60) 이준호 (상대 65) 이충희 (공대 53) 이종도 (간호 69) 이재권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이창무 (공대 54) 이정광 (상대 61)* 이현찬 (치대 75) 이홍표 (의대 58)* 이희홍 (공대 68) 임간식 (음대 54)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석중 (공대 51) 임창희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윤희 (사대 54) 장인숙 (간호 70) 장정용 (미대 64)* 전경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범수 (농대 71) 전상국 (사대 52) 정균희 (의대 66)* 정동규 (공대 57) 정두중 (가정 72) 정승만 (의대 66) 정연용 (상대 63)* 정여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진우 (의대 66) 정철룡 (의대 55)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형태 (상대 69) 정 환 (공대 64) 정희영 (치대 58) 조동준 (의대 57) 조만영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순자 (치대 57) 조성식 (공대 55) 조영길 (공대 50) 조희석 (치대 65)* 오승자 (사대 59) 이건영 (문리 71)* 이건일 (의대 62) 이광재 (공대 59) 이근원 (공대 67) 이기에 (사대 52)* 이명선 (상대 58)* 이민정 (의대 83) 이방기 (농대 59) 이범식 (공대 61) 이병준 (상대 6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소희 (의대 61)* 이수희 (간호 47) 이시한 (문리 52) 이영송 (치대 63) 이영일 (문리 53) 이영현 (간호 70)*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의대 65)* 이은경 (간호 80) 이익삼 (사대 58)* 이정희 ()</td> <td>Park H. H. 북가주 SAN FRANCISCO 강일성 (상대 55) 강재호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광호 (의대 66)* 김성환 (약대 67) 김병호 (상대 57) 김영석 (상대 62) 김유범 (의대 54)* 김욱경 (의대 59) 김정복 (사대 55) 김정자 (사대 51) 김동호 (약대 55) 김현왕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노상규 (공대 60) 민병곤 (공대 65) 박경용 (약대 63)* 박서규 (법대 56) 박성수 (공대 59) 박성성 (법대 53) 박종영 (상대 52) 박찬호 (자연 81) 부영무 (치대 72) 송창성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신규영 (공대 64) 안병형 (공대 58) 안 진 (음대 96) 안호삼 (문리 58) 양모길 (의대 55) 양서명 (보건 66)* 유승일 (의대 59) 윤성희 (사대 58) 윤기철 (의대 65) 이강우 (문리 59) 이성형 (상대 57) 이현숙 (사대 62) 이흥기 (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임희례 (간호 73)* 전병현 (공대 54) 전해경 (문리 67) 정규남 (공대 52) 정영자 (문리 59) 정유석 (의대 58) 정진수 (공대 56) 정준임 (간호 67) 조태욱 (사대 60) 최경선 (농대 65)* 탁은숙 (문리 54)* 홍병익 (공대 68) 황동호 (의대 65) 황만익 (사대 59) 뉴욕 NJ/NY 강교숙 (간호 73) 강영선 (공대 50)* 강에드 (사대 60) 계동휘 (치대 67) 고광호 (약대 56) 고수정 (간호 69) 공화삼 (농대 64) 권문용 (미대 61) 권영국 (상대 60)</td> <td>곽소선 (문리 49) 곽상준 (약대 55) 곽선승 (공대 61)* 곽승용 (의대 65) 금동룡 (문리 58) 김경순 (상대 59) 김광현 (미대 57) 김광호 (의대 66)* 김성환 (약대 67) 김문경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숙 (보건 65) 김병술 (약대 52) 김봉련 (사대 54) 김석식 (의대 58) 김석자 (음대 61) 김상만 (법대 52) 김성현 (약대 56) 김세환 (공대 65)* 김승호 (공대 71)* 김영무 (공대 75) 김영애 (사법 56) 김영철 (간호 55) 김영희 (간호 53) 김원주 (의대 54) 김우영 (상대 60) 김유순 (간호 64) 김윤선 (문리 63)* 김정빈 (약대 54) 김정희 (간호 69) 김정희 (약대 56) 김종률 (사대 51) 김종현 (법대 57)* 김성우 (약대 64) 김태일 (공대 68) 김한중 (의대 56) 김해일 (의대 53)*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희자 (미대 66) 남옥우 (음대 55)* 노용민 (의대 49) 류재룡 (공대 58) 류재은 (미대 71) 문서면 (의대 52) 문석자 (음대 60) 민발식 (의대 60) 민인기 (의대 67) 박각진 (공대 60) 박경숙 (간호 72) 박경원 (미대 66) 박수안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박승화 (간호 69) 박영태 (상대 63)*</td>	이정근 (사대 60) 이준호 (상대 65) 이충희 (공대 53) 이종도 (공대 66) 이재권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이재선 (상대 58) 이창무 (공대 54) 이정광 (상대 61)* 이현찬 (치대 75) 이홍표 (의대 58)* 이희홍 (공대 68) 임간식 (음대 54)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석중 (공대 51) 임창희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윤희 (사대 54) 장인숙 (간호 70) 장정용 (미대 64)* 전경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범수 (농대 71) 전상국 (사대 52) 정균희 (의대 66)* 정동규 (공대 57) 정두중 (가정 72) 정승만 (의대 66) 정연용 (상대 63)* 정여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진우 (의대 66) 정철룡 (의대 55)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형태 (상대 69) 정 환 (공대 64) 정희영 (치대 58) 조동준 (의대 57) 조만영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순자 (치대 57) 조성식 (공대 55) 조영길 (공대 50) 조희석 (치대 65)* 오승자 (사대 59) 이건영 (문리 71)* 이건일 (의대 62) 이광재 (공대 59) 이근원 (공대 67) 이기에 (사대 52)* 이명선 (상대 58)* 이민정 (의대 83) 이방기 (농대 59) 이범식 (공대 61) 이병준 (상대 6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소희 (의대 61)* 이수희 (간호 47) 이시한 (문리 52) 이영송 (치대 63) 이영일 (문리 53) 이영현 (간호 70)*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의대 65)* 이은경 (간호 80) 이익삼 (사대 58)* 이정희 ()	이정근 (사대 60) 이준호 (상대 65) 이충희 (공대 53) 이종도 (간호 69) 이재권 (법대 56) 이재룡 (공대 71) 이창무 (공대 54) 이정광 (상대 61)* 이현찬 (치대 75) 이홍표 (의대 58)* 이희홍 (공대 68) 임간식 (음대 54) 임동규 (미대 57) 임동호 (약대 55) 임문빈 (상대 58) 임석중 (공대 51) 임창희 (공대 73) 임화식 (치대 59) 장윤희 (사대 54) 장인숙 (간호 70) 장정용 (미대 64)* 전경철 (공대 55) 전낙관 (사대 60)* 전범수 (농대 71) 전상국 (사대 52) 정균희 (의대 66)* 정동규 (공대 57) 정두중 (가정 72) 정승만 (의대 66) 정연용 (상대 63)* 정여현 (상대 63)* 정재훈 (공대 64) 정진우 (의대 66) 정철룡 (의대 55) 정현진 (간호 68) 정형민 (문리 71) 정형태 (상대 69) 정 환 (공대 64) 정희영 (치대 58) 조동준 (의대 57) 조만영 (상대 58)* 조상하 (치대 64) 조순자 (치대 57) 조성식 (공대 55) 조영길 (공대 50) 조희석 (치대 65)* 오승자 (사대 59) 이건영 (문리 71)* 이건일 (의대 62) 이광재 (공대 59) 이근원 (공대 67) 이기에 (사대 52)* 이명선 (상대 58)* 이민정 (의대 83) 이방기 (농대 59) 이범식 (공대 61) 이병준 (상대 65) 이서희 (법대 70) 이성숙 (공대 56) 이소희 (의대 61)* 이수희 (간호 47) 이시한 (문리 52) 이영송 (치대 63) 이영일 (문리 53) 이영현 (간호 70)* 이원익 (문리 73) 이원택 (의대 65)* 이은경 (간호 80) 이익삼 (사대 58)* 이정희 ()	Park H. H. 북가주 SAN FRANCISCO 강일성 (상대 55) 강재호 (상대 57)* 권오형 (사대 61)* 김광호 (의대 66)* 김성환 (약대 67) 김병호 (상대 57) 김영석 (상대 62) 김유범 (의대 54)* 김욱경 (의대 59) 김정복 (사대 55) 김정자 (사대 51) 김동호 (약대 55) 김현왕 (공대 64) 김희봉 (공대 68) 노상규 (공대 60) 민병곤 (공대 65) 박경용 (약대 63)* 박서규 (법대 56) 박성수 (공대 59) 박성성 (법대 53) 박종영 (상대 52) 박찬호 (자연 81) 부영무 (치대 72) 송창성 (공대 69) 송영훈 (상대 57) 신규영 (공대 64) 안병형 (공대 58) 안 진 (음대 96) 안호삼 (문리 58) 양모길 (의대 55) 양서명 (보건 66)* 유승일 (의대 59) 윤성희 (사대 58) 윤기철 (의대 65) 이강우 (문리 59) 이성형 (상대 57) 이현숙 (사대 62) 이흥기 (공대 62) 임정란 (음대 76) 임희례 (간호 73)* 전병현 (공대 54) 전해경 (문리 67) 정규남 (공대 52) 정영자 (문리 59) 정유석 (의대 58) 정진수 (공대 56) 정준임 (간호 67) 조태욱 (사대 60) 최경선 (농대 65)* 탁은숙 (문리 54)* 홍병익 (공대 68) 황동호 (의대 65) 황만익 (사대 59) 뉴욕 NJ/NY 강교숙 (간호 73) 강영선 (공대 50)* 강에드 (사대 60) 계동휘 (치대 67) 고광호 (약대 56) 고수정 (간호 69) 공화삼 (농대 64) 권문용 (미대 61) 권영국 (상대 60)	곽소선 (문리 49) 곽상준 (약대 55) 곽선승 (공대 61)* 곽승용 (의대 65) 금동룡 (문리 58) 김경순 (상대 59) 김광현 (미대 57) 김광호 (의대 66)* 김성환 (약대 67) 김문경 (약대 61) 김병권 (문리 63) 김병숙 (보건 65) 김병술 (약대 52) 김봉련 (사대 54) 김석식 (의대 58) 김석자 (음대 61) 김상만 (법대 52) 김성현 (약대 56) 김세환 (공대 65)* 김승호 (공대 71)* 김영무 (공대 75) 김영애 (사법 56) 김영철 (간호 55) 김영희 (간호 53) 김원주 (의대 54) 김우영 (상대 60) 김유순 (간호 64) 김윤선 (문리 63)* 김정빈 (약대 54) 김정희 (간호 69) 김정희 (약대 56) 김종률 (사대 51) 김종현 (법대 57)* 김성우 (약대 64) 김태일 (공대 68) 김한중 (의대 56) 김해일 (의대 53)* 김현중 (공대 63) 김훈일 (공대 60) 김희자 (미대 66) 남옥우 (음대 55)* 노용민 (의대 49) 류재룡 (공대 58) 류재은 (미대 71) 문서면 (의대 52) 문석자 (음대 60) 민발식 (의대 60) 민인기 (의대 67) 박각진 (공대 60) 박경숙 (간호 72) 박경원 (미대 66) 박수안 (의대 59) 박순영 (법대 56) 박승화 (간호 69) 박영태 (상대 63)*
-----------------	------------------------------	--	---	--	---	--

동창회비 (2차 회기: 2018. 7. 1 ~ 2019.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표: 차기 1차 회기까지 내신 분

공군소 (간호 66)* 곽근영 (사대 51) 곽명수 (문리 65) 권오근 (상대 58) 권철수 (의대 68)* 계화자 (문리 61)* 김내도 (공대 63) 김동훈 (법대 56) 김명자 (법대 52) 김병오 (의대 63) 김복순 (사대 55) 김안정 (문리 59) 김영기 (공대 73) 김용덕 (의대 53) 김용환 (치대 88)* 김종호 (약대 68)* 김진수 (의대 60) 김진은 (사대 55) 김 철 (의대 62) 김정학 (경영 84) 남춘일 (사대 69) 류재동 (법대 60) 박용걸 (의대 56) 박유진 (미대 58) 박인영 (의대 69) 박일영 (문리 59) 박은희 (미대 58)* 박형순 (의대 54) 박홍우 (문리 61) 백 순 (법대 58) 백만산 (상대 49)* 서유석 (의대 62) 서희열 (의대 55) 송근범 (문리 61) 송병택 (의대 68) 심준보 (상대 55)	안선미 (농대 65) 안승건 (문리 55) 안인옥 (간호 71) 안창호 (약대 70) 안태민 (공대 62)* 양광수 (공대 73) 여준구 (의대 64) 오광동 (공대 52) 오인환 (문리 63) 우재형 (상대 54) 원종민 (약대 57) 유덕영 (공대 57) 유영준 (의대 68)* 유정식 (수의 60)* 이규양 (문리 62) 이내원 (사대 58)* 이문항 (공대 46)* 이선구 (문리 65)* 이수만 (공대 54) 이승일 (공대 52) 이연주 (치대 88)* 이영수 (공대 59)* 이윤주 (상대 62) 이재승 (의대 55)* 이주희 (음대 89) 이준영 (치대 74) 이종두 (의대 57) 이진호 (공대 46)* 전희순 (간호 76)* 정계훈 (문리 55) 정기순 (간호 67) 정세근 (자연 82) 정원자 (농대 62) 정평희 (공대 71) 정희연 (의대 66) 조영문 (공대 67)* 조세진 (의대 65)	조화유 (문리 61)* 최경수 (문리 54) 최규식 (상대 64) 최재호 (문리 68) 최재구 (미대 63)* 최희생 (수의 60) 한정민 (농대 87)* 홍영석 (공대 58) 홍영옥 (음대 54) 위성현주 WASHINGTON 고광선 (공대 57) 김교선 (법대 54) 김석희 (의대 54) 김인배 (수의 59) 김재훈 (공대 72) 김주영 (의대 56) 류성렬 (공대 72) 박진수 (의대 58)* 박찬형 (의대 56)* 반중혜 (법대 58) 안승철 (농대 59) 윤석진 (문리 64)* 윤대근 (상대 69) 이길승 (상대 57) 이순모 (공대 56) 이원섭 (농대 77) 이희백 (의대 55) 하주홍 (경영 77)* 유타 UTAH/NV 김인기 (문리 58) 이 관 (공대 55)	 조지아 GA/AL/MS 강창석 (의대 73) 김순옥 (의대 54) 김영서 (상대 54) 김유진 (문리 48)* 김종수 (수의 73) 김태형 (의대 57) 김학래 (공대 60) 김현학 (의대 57) 박찬기 (법대 55) 백성식 (약대 58) 손종수 (의대 50) 안승덕 (상대 51)* 오경호 (수의 60) 유성무 (상대 66)* 유우영 (의대 61) 임수암 (공대 62) 임종원 (의대 54) 정량수 (의대 60) 정선휘 (공대 65) 윤석진 (문리 64)* 최준진 (의대 63) 한 호 (상대 62) 중부텍사스 MID-TEXAS 박준섭 (약대 63) 이영재 (상대 58) 북부텍사스 LA/DALLAS 김옥균 (공대 54)	유 황 (농대 56) 이석호 (공대 78) 전중희 (공대 56)* 조진태 (문리 57) 탁해숙 (음대 67) 하상태 (의대 59) 황명규 (공대 61) 필라델피아 PA/DE/S.N.J. 강영배 (수의 59) 강준철 (사대 59) 고영자 (치대 63) 길정숙 (사대 53)* 규하철 (상대 63) 김진수 (의대 61) 김영우 (공대 55) 김재술 (약대 48) 김우진 (법대 54)* 김진우 (공대 63)* 김한중 (공대 56) 김현영 (수의 58) 지 훈 (의대 71) 노은숙 (약대 53)* 문태욱 (의대 67)* 배성호 (의대 65) 서의원 (공대 66) 서재진 (공대 47) 서준민 (공대 64) 성정호 (약대 59) 손재욱 (가정 77) 송성균 (공대 50) 송영두 (의대 56) 신상진 (사대 60) 신성식 (공대 56)	신익석 (공대 53) 심영석 (공대 76) 심완섭 (의대 67) 안세현 (의대 62) 엄종철 (미대 61) 유기병 (문리 64) 유영걸 (의대 70) 윤정나 (음대 57) 이규호 (공대 56) 이만택 (의대 52) 이병민 (수의 73) 이성득 (문리 67)* 이성숙 (가정 74) 이지춘 (미대 57) 전무식 (수의 61) 전반남 (상대 73) 전성곤 (의대 54) 정덕준 (상대 63) 정용남 (문리 60) 정태광 (공대 74) 정종택 (상대 61) 제갈은 (문리 59) 조영호 (음대 56) 조정현 (수의 58) 조화연 (음대 64) 주기목 (수의 68) 지훈민 (수의 61) 진병학 (의대 57) 차호순 (문리 60) 최정웅 (공대 64) 최준희 (의대 58) 최종무 (상대 63)* 최현태 (문리 62) 한승우 (의대 55) 한웅오 (보건 70)	 플로리다 FLORIDA 김동한 (문리 53) 김종권 (의대 63) 김연국 (수의 74) 나혜원 (약대 55)* 박창익 (농대 64)* 윤기향 (법대 65) 이재택 (법대 60) 임필순 (의대 54) 전영자 (미대 58)* 최준희 (의대 58) 한기빈 (공대 52)* 한수성 (의대 54) 홍순호 (수의 74) 황현상 (의대 55)* 케네디컷 CT 김기훈 (상대 52)* 유시영 (문리 68) 임경빈 (농대 78) 주공로 (공대 68)* 최수강 (의대) 최창성 (의대 54)* 홍성희 (공대 56) 캐롤리나 SC/NC/KY 김기현 (문리 51)* 마동일 (의대 57) 성예경 (치과 54)	윤 속 (문리 66) 이달호 (사대 45) 이법세 (의대 59) 이법세 (의대 63) 이석형 (사대 56)* 이종영 (음대 58) 한광수 (의대 57) 홍 훈 (문리 75) 테네시 TENNESSEE 김경덕 (공대 75) 박재현 (자연 81) 서갑식 (공대 70) 하와이 HAWAII 김달욱 (사대 55) 김승태 (의대 57) 유재호 (문리 57)* 윤재중 (농대 54) 이희형 (수의 61) 장광수 (사대 51) 차용만 (의대 58) 최경윤 (상대 51) 하트랜드 IA/MO/KS/NE/ AR/OK 구명순 (간호 66)* 김경숙 (가정 70) 김시근 (공대 72)* 도태영 (사회 93) 성낙준 (사대 68)	이성강 (의대 70) 임영진 (의대 54) 차봉희 (의대 51) 최은관 (상대 64) 휴스턴 HOUSTON 김기준 (공대 61) 김민자 (사대 58) 김정환 (공대) 김태훈 (공대 57) 김현식 (의대 53) 박석규 (간호 56) 박영미 (약대 62) 박태우 (공대 64)* 유원창 (공대 69) 이규진 (의대 60) 이길영 (문리 59) 이영욱 (가정 74) 진기주 (상대 60) 최관일 (공대 54) 최성호 (문리 58) 최용현 (의대 53)* 탁순덕 (사대 57) [비고] 필라 김우진 (법 대 54), 길정숙 (사 대 53) 둘은 1년 회비로 각각 \$500 보내 음
--	---	--	--	---	---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	☐ \$75 (2018. 7 ~ 2019. 6) ☐ \$150 (2018. 7 ~ 2020. 6) ☐ \$3,000 (중신이사회비)	☐ \$240 (2018. 7 ~ 2019. 6) ☐ \$480 (2018. 7 ~ 2020. 6) 일반 광고 문의: general@snuua.org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 Tel: 978-835-0100 Email: general@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poration 김경무 공인회계사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상대81), 김낙구(상대67), 강동순(법대59) Tel. (213) 380-5060 (LA) (714) 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A, CA 90010
임춘택 공인회계사 (상대 68)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s 김원철 (농대) Tel. (213) 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KOOG WON KWUN CPA & ASSO, INC 권국원 (공대) Tel. (213) 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os Angeles, CA 90005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Haitai Inc. 정정우 (수의 74) Tel.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el) 323-965-1717 / Fax)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안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CareMax Pharmacy Chang H. Yoo, RPh./ Dr. 유창호 (약대 74)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Cell: 909-229-7777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Seoul Medical Group ★ 차민영 (의대 76) Tel: 213-480-7770 (877) 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나성약국 ★ 임낙균 (약대 64) Tel: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yahoo.com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Dr. Lee, Chong Do. Dennis 이종도 (공대 66) Tel: (626)448-7870 / Fax: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nu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O) (818) 514-6780 (M) (818) 720-2373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 (909) 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el.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 83) Tel. (213) 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E-mail: iminusa@iminusa.net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ee@gmail.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el: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기타
Turbo Air, Inc. ★ 서치원 (공대 69) Tel: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el.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os Angeles, CA 900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8),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irect: 213-262-3805, T: 213-262-3800, F: 213-262-3810, Mobile: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GA 조지아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건축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광고주를 모십니다.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el: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 C1 Closter, NJ 07624
내과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광고주를 모십니다.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재활의학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H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A4 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비뇨기과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알려지
이혁엽 알려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소아과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호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 81) Tel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MD-VA 워싱턴 DC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el.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MD-VA 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n,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489-2474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n.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oan.com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라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어느곳이든 5스타급 서비스와 가이드
usajutour.com 213-388-4000

문의: D.C. 상풍권
백옥자 (Jace Lee) 213-388-4000, 818-395-1967

KCC News kccnews.net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News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과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취재보도하는 Internet Media.
각 지역 서울대 동문들의 문화활동 제보 바랍니다.

남미, 아프리카등 9개국 선교지 12회 방문취재
권문웅(미대 61-디자인) moonk206@gmail.com T.973.600.0834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2018년 동창회비를 아직 납부하지시지 못한 동문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속히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2년: \$15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4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승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명예회장: 손재욱 (가정)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
차기회장: 신응남 (농) Brain Network 공동 부회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강명구 (문), 김병국 (공) 고문: 고일석 (보), 김은한 (의), 정정욱 (의), 김문소 (수) Corporate Counselor: 신응남 (농)
집행부
본부 부회장: 장수인 (음) 사무총장: 이상운 (수) 재무 국장: 김제성 (공) 총무 국장: 이진희 (수) 총무: 배지선 (수), 총무보: 강은주 IT Consulting Team 업무 국장: 정선주 (간) 섭외 국장: 윤용훈 (공) 홍보 국장: 이영인 (사)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윤상래 (수), 고문: 김은하 (의)
편집장: 김원영 (미), 편집 고문: 정태영 (문) 편집 위원: 윤용훈 (공), 홍선례 (음), 정태영 (문), 이정수 (공), 백옥자 (음) 이영인 (사), 장수인 (음), 김제성 (공), 이상운 (수), 이진희 (수) 허유선 (가정), 한정민 (농), 배지선 (수)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한정민 (DC)
IT 위원회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강영국 (수), 정태영 (문), 박광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김용현 (경),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이석구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SNAAUSA CENTURY FOUNDATION 위원회: 위원장 이상강 (의)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록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수), 공동 위원장: 김용구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포상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윤상래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감사: 김명승 (상), 박영철 (농)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dav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손대홍 (미대 79)	201-388-4700	sohn6305@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윤은상 (상대 66)	978-886-5989	eunsang_yoon@uml.edu	Jul-Jun
	차기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480-209-9992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욱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철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전무식 (수의 61)	267-242-5097	msjeon41@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a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오명순 (가정 69)	913-709-2334	msoonbae@gmail.com	Sep-Aug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 (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 (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300호 발행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4대 회장 윤상래 (수의 62)

SNU Alumni Association USA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l: 978-835-0100
news@snuuaa.org / www.snuuaa.org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15th ANNIVERSARY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 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일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싱글맘,
이제 좋은 짝만 있으면 되겠죠?

결혼해 듀오

DUO USA 3701 Wilshire Blvd. #1122, Los Angeles,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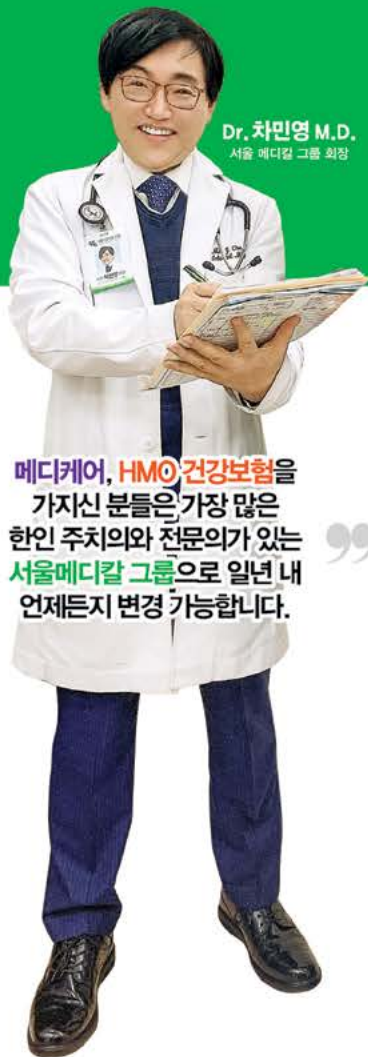
듀오
LA 213-383-2525
NY 212-947-2525

2만명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 왜 다들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가입하시길 원하십니까?

예방 의학도 최고!
“ 치료 의학도 최고! ”
전문의 리퍼도 최고!

시니어분들의 건강 지킴이 서울 메디칼 그룹의 주치의들입니다.
주치의도 전문의도 크고 탄탄한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275여명의 주치의 | 2875여명의 전문의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있는
서울메디칼 그룹으로 일년 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의 많은 주치의들이
다양한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213.389.0077 • 1.800.611.9862
520 S. VIRGIL AVE., #107, LOS ANGELES, CA 90020

메디케어, HMO 건강보험을 가지신 분들은 **전문의 허가(Referral)**가
아주 빠른 서울 메디칼 그룹을 택하시고 **최고의 의료혜택**을 받으세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 오렌지 카운티 · 산타 클라라) · 하와이 · 워싱턴 (시애틀) · 조지아 · 버지니아 · 뉴저지